문법 및 작문 스타일 안내에 관한 자세한 설명

이 문서는 Microsoft 편집기가 제공하는 문법 및 작문 스타일 안내에 관한 설명과 예를 다루고 있습니다. 일부 문제는 Microsoft 365 계정으로 서비스에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감지됩니다.

*경고*: 이 문서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의 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어법

| *사안* | *지침* | *설명* | *사례*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'것'을 포함하는 합성어 | '것'이 합성어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앞에 공백을 제거하여야 함. | '- '것'에 선행하는 표현과 '것'이 합성어로서 한 단어로 기능하는 경우, 그 사이에 공백을 제거해야 한다. - '것'을 포함하는 합성어는 다음과 같다. : 새것, 헌것,옛것, 그것, 저것, 이것, 아무것, 딴것, 생것, 날것, 들것, 별것, 단것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별 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. | 별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. | | 이 것 저 것 몇 가지 더 사다 보니 돈 만 원을 넘겼다. | 이것저것 몇 가지 더 사다 보니 돈 만 원을 넘겼다. | |
| 보조 용언 '지다' | 보조용언 '지다' 가 '-어/아로 끝나는 본용언과 결합하는 경우, 그 앞에 공백을 제거하여야 함. | '- 보조용언 '지다'가 '-어' 혹은 '-아'로 끝나는 본 용언과 결합하는 경우, 본용언과 보조용언 '지다' 사이는 띄어 쓰지 않는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많아 질 수도 있다. | 많아질 수도 있다. | | 꿈은 이루어 진다. | 꿈은 이루어진다. | |
| 감탄사 | 감탄사 뒤에 콤마를 추가하여야 함. | 감탄사 뒤에 콤마가 없을 때는 콤마를 추가하여야 함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아무렴 그래야지. | 아무렴, 그래야지. | | 그 애가 글쎄 그놈을 때렸다네. | 그 애가 글쎄, 그놈을 때렸다네. | |
| 접두사 '제'의 띄어쓰기 | '그 숫자에 해당하는 차례'의 뜻을 더하는 '제-'는 접두사이므로 수사와 붙여 써야 함 | '그 숫자에 해당하는 차례'의 뜻을 더하는 '제-'는 접두사이므로 수사와 붙여 써야 한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제 3자에게 중재를 맡기기로 합의했다. | 제3자에게 중재를 맡기기로 합의했다. | | 제 삼자의 의견들을 읽어 보셨습니까? | 제삼자의 의견들을 읽어 보셨습니까? | |
| 의존명사 |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와 앞에 오는 수사 사이에 공백이 없을 때는 공백을 추가하여야 함. |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의 수 관형사와 띄어 쓴다. 그러나 순서나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, 단위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. 또한 연월일,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회의에는 세분이 오셨다. | 회의에는 세 분이 오셨다. | | 여기에 온 지 벌써 한해가 지났다. | 여기에 온 지 벌써 한 해가 지났다. | |
| 방향을 나타내는 수식어의 띄어쓰기 | 방향을 나타내는 수식어는 그 뒤에 나오는 구와 붙여 써야 함. | 대부분의 경우에, 방향을 나타내는 수식어는 그 뒤에 나오는 구와 붙여 써야 함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뒷 사람이 운전한다. | 뒷사람이 운전한다. | | 오른 쪽으로 작품들이 있다. | 오른쪽으로 작품들이 있다. | |
| 띄어쓰기 |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하나의 공백만 사용. | 대체로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하나의 공백만 사용한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이 줄은 너무 길다. | 이 줄은 너무 길다. | |
| 경어법 | 문장 내에서의 부적절한 높임 표혐을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줌. | 동사구 내에서 높임법이 반복되어 사용되거나, 사물을 대상으로 높임법이 사용되었을 때 이를 적절한 높임 표현으로 바꾸어 준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정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계실 겁니다. |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. | | 그 상품은 품절되셨어요. | 그 상품은 품절되었어요. | |
| 안되다 | 사용 맥락에 따라 '안', '되다' 사이의 띄어쓰기 사용 여부 결정 | '되다'의 반대 의미를 뜻하는 경우, 올바를 띄어쓰기는 '안 되다'이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. |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. | | 몇 안되다. | 몇 안 되다. | |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. |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. | | 그가 사고로 누워 있다니 안 됐다. | 그가 사고로 누워 있다니 안됐다. | | 얼굴이 안 됐다. | 얼굴이 안됐다. | |
| 한 잔 | 명사 '한잔'과 '하다' 동사 사이에 공백을 제거/의존 명사 '잔' 앞에 공백을 추가 | 명사 '한잔'이 '마시다'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'하다'동사 및 '하다'파생동사와는 항상 붙여 써야 함. 의존 명사 '잔/번' 앞에 공백이 없을 때는 공백을 추가하여야 함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일 끝나고 한 잔 하러 갑시다. | 일 끝나고 한잔하러 갑시다. | | 우리 한 잔 하지. | 우리 한잔하지. | | 한잔씩 마시도록 하자. | 한 잔씩 마시도록 하자. | | 한잔 정도는 할 수 있어. |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어. | | 그는 한잔에 290만원짜리 폭탄주를 돌렸다. | 그는 한 잔에 290만원짜리 폭탄주를 돌렸다. | |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. |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. | |
| 띄어쓰기 | 문장부호의 띄어쓰기 | 모든 문장부호는 앞 단어에 붙여 써야 한다. 다만 여는 괄호는 앞 단어로부터 띄어 쓸 수 있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(인사 및 영업 분야 )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되었다. |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(인사 및 영업 분야)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되었다. | |
| 띄어쓰기 | 문장부호의 띄어쓰기 | 모든 문장부호는 앞 단어에 붙여 써야 한다. 다만 여는 괄호는 앞 단어로부터 띄어 쓸 수 있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이 아파트는 충분한 주차공간 ,쾌적한 주위 환경이 장점이다. | 이 아파트는 충분한 주차공간, 쾌적한 주위 환경이 장점이다. | |
| 부적절한 문장 끝 표현 | 부적절한 문장 끝 표현을 수정하여야 함. | 문장 끝의 부적절한 표현 '-에요/-구요/-시요/-ㄹ께'는 올바른 표현 '-예요/-고요/-시오/-ㄹ게'로 수정되어야 함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나무에요. | 나무예요. | | 그렇기도 하구요. | 그렇기도 하고요. | |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요. |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. | | 오늘 쓰고 줄께요. | 오늘 쓰고 줄게요. | |
| 띄어쓰기 | 문장부호의 띄어쓰기 | 문장부호 다음에는 적어도 하나의 공백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여는 괄호 다음에는 공백을 넣지 않는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이 차트와 보고서,메모를 복사해 주세요. | 이 차트와 보고서, 메모를 복사해 주세요. | | 그는 문제가 있는 논문( 표절 논문)에 관한 추궁을 받았다. | 그는 문제가 있는 논문(표절 논문)에 관한 추궁을 받았다. | |
| 띄어쓰기 | 문장부호의 띄어쓰기 | 문장부호 다음에는 하나의 공백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여는 괄호 다음에는 공백을 넣지 않는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그는 문제가 있는 논문( 표절 논문)에 관한 추궁을 받았다. | 그는 문제가 있는 논문(표절 논문)에 관한 추궁을 받았다. | |
| 문장부호 | 문장부호의 사용 | 문장부호를 불필요하게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이 음식점에서는 햄버거, 피자, 치킨,, 등을 판다. | 이 음식점에서는 햄버거, 피자, 치킨, 등을 판다. | |
| 불리다의 잘못된 피동 표현 | 불리다의 잘못된 피동표현을 수정하여야 함. | '불리다'는 '부르다'의 피동사이므로 피동 접사인 '-우-'가 사용된 '불리우다'는 잘못된 활용이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많은 사람에게 불리우는 노래이다. | 많은 사람에게 불리는 노래이다. | | 시상식에서 내 이름이 불리웠을 때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. | 시상식에서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. | |
| 대문자 | 대소문자의 사용 | 영어 문장의 경우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it usually snows in November. | It usually snows in November. | | does this book belong to you or to the library? | Does this book belong to you or to the library? | |
| 물음표 | 의문문의 종결 어미에 물음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물음표를 추가하여야 함. |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인 문장의 끝에는 물음표를 써야 한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어디에 사십니까. | 어디에 사십니까? | | 해답을 찾았는가. | 해답을 찾았는가? | | 공부 많이 했니. | 공부 많이 했니? | |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. |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? | |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. |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? | |
| 의존명사 | 의존 명사와 앞에 오는 단어 사이에 공백이 없을 때는 공백을 추가하여야 함. | 의존 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앞에 꾸며 주는 말이 필요하다. 그러나 의존 명사 역시 다른 한국어 명사와 마찬가지로 앞말과 띄어 쓰여야 한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심심하니 할거 좀 다오. | 심심하니 할 거 좀 다오. | | 가능한걸 부탁해야지. | 가능한 걸 부탁해야지. | |
| 보조용언 | 의존 명사와 보조용언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는 공백을 제거하여야 함. | 의존 명사와 보조용언이 합쳐져 쓰이는 보조용언은 붙여써야 한다. 또한 의존 명사와 그 앞 어절은 붙여쓸 수 없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한 시간이 지난 듯 했다. | 한 시간이 지난 듯했다. | | 하마터면 죽을 뻔 했다. |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. | | 가족인척도 하지 마라. | 가족인 척도 하지 마라. | |
| 품사통용어 | 의존 명사나 조사로 쓰이는 단어는 사용 맥락에 유의하여 잘못된 띄어쓰기를 교정하여야 함. | 의존 명사와 조사간에 통용되어 쓰이는 '만큼', '뿐' 등의 낱말은 그 쓰임에 유의하여 띄어쓰기를 한다.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앞 어절로부터 띄어 써야 하며, 조사로 쓰일 때는 앞 어절에 붙여 써야 한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어제 만큼 날씨가 춥지 않다. | 어제만큼 날씨가 춥지 않다. | | 그 팀은 정말 무서우리 만큼 기세가 강하다. | 그 팀은 정말 무서우리만큼 기세가 강하다. | | 꽃이 예쁠 뿐더러 향기도 좋다. | 꽃이 예쁠뿐더러 향기도 좋다. | |
| 호칭 의존명사 | 호칭 의존명사는 띄어 써야 함. | 의존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꾸며 주는 단어가 필요하다. 이름 또는 닉네임 뒤에 오는 호칭 '님/씨/군/양'은 의존명사로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한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Jasmine님 고마워요. | Jasmine 님 고마워요. | | 박 모씨가 누구야? | 박 모 씨가 누구야? | | 최아무개씨가 운영합니다. | 최 아무개 씨가 운영합니다. | |
| 명사형 접미사 | 명사 뒤에 붙는 접미사와 명사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는 공백을 제거하여야 함. | 접미사가 따라오는 (파생)명사는 항상 접미사와 붙여서 써야 한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그녀는 며칠 째 소식이 없었다. | 그녀는 며칠째 소식이 없었다. | | 그의 연주는 실수 투성이였다. | 그의 연주는 실수투성이였다. | |
| 조사 | 조사와 앞에 오는 말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는 공백을 제거하여야 함. | 조사는 앞에 오는 말에 항상 붙여 써야 한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문자 의 기원을 배웠다. | 문자의 기원을 배웠다. | | 물 조차 없어. | 물조차 없어. | |
| 부적절한 최상급의 활용 | 부적절한 최상급 사용을 수정하여야 함. | 최상급 표현을 사용할 경우, 최상급의 의미와 호응되지 못하는 부적절한 명사구를 바꾸어 준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민수는 가장 빠른 아이 중 하나다. | 민수는 가장 빠른 아이다. | | 집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들 중 하나다. | 집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다. | |
| 서술형 접미사 | 용언과 접미사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는 공백을 제거하여야 함. | 파생동사는 항상 붙여 써야 한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공연장이 소란 스럽다. | 공연장이 소란스럽다. | | 금리를 하락 시켰다. | 금리를 하락시켰다. | |
| 합성어 | 한 단어로 취급되는 합성어 내에 공백이 있을 때는 공백을 제거하여야 함. | 합성어는 여러 개의 어근이 모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독립된 단어이므로,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은 항상 붙여 써야한다. 또한 연결 동사 중 많이 쓰이는 일부 동사는 합성어로 취급하여 붙여 써야한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문제 없는 사회가 어디 있어? | 문제없는 사회가 어디 있어? | | 그렇게 내려다 보면 안 된다. | 그렇게 내려다보면 안 된다. | |
| 못하다 | 형용사로 쓰이는 '못하다'는 부사 '못'과 동사 '하다'를 붙여 써야 함. | 형용사로 활용되는 '못하다'는 부사 '못'과 동사 '-하다'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함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 하다. |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하다. | | 마음이 편안하지 못 하다. |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. | | 잡은 고기가 못 해도 열 마리는 되겠지. | 잡은 고기가 못해도 열 마리는 되겠지. | |
| 수동형 표현 | 잘못된 피동표현을 바르게 교정하여야 함. | 형태소 <-이, -히, -리, -기>가 붙어 피동을 뜻하는 동사에는 <-해지다>를 이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추억은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. | 추억은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. | | 그곳에 놓여진 사진을 보았다. | 그곳에 놓인 사진을 보았다. | |
| 혼동되는 단어 | 맥락에 맞지 않는 형태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올바른 단어로 바꿔 써야 함. | 형태와 발음이 유사하여 혼동되는 단어는 맥락에 맞는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. '-(으)로써'는 수단 및 도구의 의미, '-(으)로서'는 자격의 의미를 가진 말 앞에 각각 쓰인다. '-든(지)'는 여러가지 나열된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때에, '-던(지)'는 과거에 대해 말할 경우에 사용한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그는 식구들끼리의 믿음으로서 시련을 극복했다. | 그는 식구들끼리의 믿음으로써 시련을 극복했다. | | 그럼 계속 그렇게 살던지. | 그럼 계속 그렇게 살든지. | |
| 호격 | 호격 뒤에 콤마를 추가하여야 함. | 호격 뒤에 콤마가 없을 때는 콤마를 추가하여야 함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여러분 부자되세요. | 여러분, 부자되세요. | | 얘들아 요즘 뭐해? | 얘들아, 요즘 뭐해? | | 고객님 물품이 발송되었습니다. | 고객님, 물품이 발송되었습니다. | |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 주소서. | 하늘이시여, 비를 내려 주소서. | |
| 부사 접미사 '이/히' | 부사 접미사 '이/히'는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함 | 혼동 부사 접미사 '이/히'는 올바르게 수정되야 함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방을 깨끗히 청소하다. | 방을 깨끗이 청소하다. | | 그의 그림이 특별이 눈에 띄었다. | 그의 그림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. | |

어휘 선택

| *사안* | *지침* | *설명* | *사례*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번역 투 '가지다'의 단어 선택 | 번역 투 '가지다'의 단어 선택 | 단어 '-를/-을' 다음에 동사 '가지다'가 오면, '가지다'를 문맥에 맞게 '보내다', '취하다', '하다', '열다', '벌이다'로 변경함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. | 애도의 시간을 보냈다. | | 행사를 가졌다. | 행사를 했다.  행사를 열었다.  행사를 벌였다. | | 휴식을 가지다. | 휴식을 취하다. | |
| 번역 투 '만들다' | 번역 투인 '만들다'를 '하다'로 변경 | 형용사 '-하게' 다음에 동사 '만들다'가 오면, '만들다'를 '하다'로 변경함. 이때 '만들다'가 무엇을 직접 만드는 행위 또는 수동형이면 제외됨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그를 고민하게 만들기 위해서다. | 그를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다. | |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다. | 마음을 심란하게 했다. | | 축구팬들을 흥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. | 축구팬들을 흥분하게 하기에 충분했다. | |

가치 중립적 언어

| *사안* | *지침* | *설명* | *사례*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성차별 및 성비하 | 성차별 및 성비하 용어는 순화하여야 함. | 성차별 및 성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맥락에 맞게 순화하여야 한다.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-- | -- | |
| 장애인 차별 및 비하 |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. |  | |  |  | | --- | --- | | **원본** | **수정 제안** | | -- | -- | |